

‘문향 광주’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김영랑·박용철·차범석·김남주·김지하·이청준·이상부·조태일·조정래·문순태·문병란·김준태·한승원·곽재구·이승우... 한국 현대문학을 이끈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이다.

하지만 최근 ‘문향 광주’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해마다 10여 명 가깝게 당선자를 냈던 조순대·순천대·광주대 문예창작과들이 올 신춘문예에서는 단 2명의 작가를 등단시키는데 그쳤다.

또 젊은 작가들도 지역 내 활동 기반이 열악해 대거 광주를 떠나고 있어 젊은 문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신춘문예에는 ‘광주’가 없다=지난 1996년 이 지역 대학에 문예창작과가 개설된 후 젊은 작가들의 사관학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1999년과 2008년에는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각각 10명과 8명의 신춘문예 당선자를 한꺼번에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역 3개 대학 문예창작과 재학·졸업생 중 신춘문예의 영광을 안은 사람은 단 2명. 이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중앙지 신춘문예에 당선한 예비 문인도 1명뿐이었다.

올 ‘신춘문예 참패’는 지역 문단의 암울한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학 동아리가 사라지고 있다=신춘문예 당선자들이 즐기고 있는 것은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문학동아리가 아예 없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문학 침체’ 현상과 맞닿아 있다.

한때 대부분 고등학교에는 문학동아리 활동이 활발했다. 또 문학동아리연합, 시조문학회, 참문학, 청솔 등 여러 학교 학생회가 모인 연합동아리들도 20여 개에 달했다. 매년 1월 초순, 광주학생회관 사무실 앞에는 미리 시화전 예약을 하기 위



올 신춘문예에서 광주·전남지역 예비문인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2012 광주일보 신춘문예 최종심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역 문창과 올 신춘문예 당선 2명... 동아리도 사라져

활동 기반 열악, 다양한 지원책 마련된 서울서 활동

해 고등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예약이 늦으면, 아예 전시공간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문학동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광주제일고, 중앙여고, 조대여고, 조대부고, 분성고 등만 문학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연합동아리는 대부분 문을 닫았다.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순대의 ‘나라’와 ‘석월’ 등의 문학동아리가 사라졌고, 전남대 문학동아리들의 활동도 예전 같지는 않다.

▲“시 써서 일 년에 6만원 벌었다”=광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단 11년차 시인 황형철(37)씨가 지난해 문예지 4곳에 작품을 발표해 벌어들인 원고료는 6만원이다. 대부분 문예지가 원고료를 책으로 대신 했다.

젊은 작가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 대부분 고향을 떠나 광주·전남작가회의 막내들은 모두 30대를 훌쩍 넘겼다.

이 지역에서 문학도들이 즐기고 있는 것은 작가의 생명인 작품 발표 기회가 적고,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의 문예지는 ‘시와 사람’ ‘문학들’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때문에 문예지와 출판사들이 풀려 있고, 다양한 작가 지원책이 마련된 서울로 젊은 작가들이 떠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박현덕·정용준씨 등이 지역 젊은 작가들이 서울로 활동 공간을 옮겨 이 기금을 받았다.

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젊은작가창작지원’은 200~500만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한 작가는 “미술 등 다른 장르에 비해 문학은 젊은 작가 키우기 위해서는 맘껏 글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1주년 기념행사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이 창립 1주년을 맞아 12일 오전11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재단 직원들과 이사진, 정책자문단, 기부금기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기념공연에서는 윤진철 광주시립국극단장이 ‘심청전’ 중 ‘심봉사 눈 뜨는 장면’을 들려주며 광주여성필화모니오

케스트라와 바리톤 김홍석·소프라노 오송하씨가 음악을 선사한다. 또 ‘광주문화재단 1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도 상영된다.

2부 기념식에서는 남해종합건설(주), 중흥건설, 크라운해태제과, 대창운수, KJB광주은행, (주)광주신세계, (주)무등, (주)우리로 광통신 등 기부를 한 8개 업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박경동·박선희·강현미씨 등 재단 직원9명에 표창장을 수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영화를 만나고 싶다면 광주극장으로

오늘부터 ‘치코와 리타’ ‘원스 어게인’ 상영

광주극장은 12일부터 음악영화 두편을 상영한다.

쿠바의 라틴 재즈를 만날 수 있는 뮤직 에니메이션 ‘치코와 리타’는 젊음과 재능으로 빛나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치코와 가수 리타의 오해와 질투, 만남과 이별, 운명의 장난이 뒤엉킨 사랑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아름다운 시절’로 아카데미 외국어영화를 수상한 스페인의 거장 페르난도 트루에바 감독과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허비에르 마리스칼, 쿠바 출신의 전설적인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인 베보 발데스가 만나 탄생시킨 작품이다.

2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원스’의 숙련적인 ‘원스 어게인’도 관객을 만난다. 실



영화 ‘치코와 리타’

력파 밴드 ‘스웰시즌’의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함께 떠난 2년 여의 월드투어 과정을 기록한 감성뮤직에세이다. 문의 062-224-5858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경숙, 맨 아시아 문학상 최종 후보

‘엄마를 부탁해’ 한국작품으로는 처음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한국작품으로는 처음으로 ‘2011 맨 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

11일 맨 아시아 문학상 조직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심사위원들은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지하철역에서 사라진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족의 역사를 살펴보는 감동적이고 구조적으로 강렬한 소설”이라며

2부 무지개 콘서트는 육아, 맞벌이, 사회참여 등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생활에 대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해소망에 대한 수다를 털며 열정을 펼치고 나누는 자리다. 참여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는 역할은 방송인 김병조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7년 제정했다. 90편의 출품작 가운데 올해 최종심에는 요시모토 나나(일본)의 ‘호수’, 옌렌커(중국)의 ‘덩치 마을의 꿈’, 자밀 아마트(파키스탄)의 ‘떠돌이 매’, 자나비 바루아의 ‘부활’, 라울 바타차라의 ‘걱정하는 사람들의 교활한 집단(The sly company of people who care)’, 아미타비 고시(이성 인도)의 ‘연기의 강’이 포함됐다.

12편의 본심 진출작에 포함됐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는 최종 후보에서는 빠졌다. /연합뉴스

지역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여성과 참여 ‘무지개 콘서트’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올해 광주 지역 여성들은 어떤 소망들을 꿈꾸고 있을까. 일상생활과 결합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행사가 마련된다.

지난해 출범한 ‘여성과 참여’(대표 박혜자 호남대학교수·사진)는 여성의 진솔한 목

소리를 담아내는 포럼 ‘무지개 콘서트’를 개최한다. 12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세미나나 특강 형식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평범한 여성



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올 한해동안 ‘재테크’, ‘사랑’, ‘환경’, ‘블루오션’, ‘건강’, ‘예술’ 등 7가지 주제로 무지개 콘서트를 이어가는 ‘여성과 참여’는 올 첫행사의 주제를 ‘열정’으로 잡고 ‘해를 다시 품다! 열정’으로 여는 2012년’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김영아 호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